



## 요약

### 사실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한 1년간의 여정.

### 양성 여정

성덕과 매일의 삶.

###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양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의 편지.

###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7. 신심회의 평신도 참여.

### 가족의 연대기

- 시칠리아: XVI ADMA 마리안 데이.

- 폴란드: 도우미신 마리아 협회 전국 대회.

- 필리핀: ADMA 국가 위원회와 창립일 축하.

- XLI 살레시안 가족 영성의 날: 요약 소책자 출판.

- 2024년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 IX 대회: 등록.

## 사실

###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한 1년간의 여정

P.1

사랑하는 아드마 회원 여러분,

P.2

5월 24일 신자들의 도우미신 마리아 축일과 6월 20일 위로의 성모 축일, 그리고 여름 방학 전 마지막 모임과 활동을 끝으로 한해 동안 계획했던 양성과 사목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P.5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신심회원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P.5

무엇보다도 올해 새로 형성된 그룹과 신입회원들, 사제와 영적활성자로부터 받은 선물,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크고 작은 은총과 신앙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돈 보스코처럼 우리도, 주님의 어머니의 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P.7

P.7

P.8

P.9

P.9

**또한 우리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자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갔나요? 우리 신심회는 돈 보스코가 아드마를 설립하도록 영감을 준 그 단순한 지침을 항상 염두에 두었나요? 그것이 우리를 더 친교를 나누게 하였나요? 아드마에 소속되어 양성받으면서, 사도직과 봉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나요?

인간적인 잣대로 타인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함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지난 9월부터 우리는 신자이면서 살레시안으로서, 성모님 영성의 보다 깊은 본질적인 원천을 찾기 위해, 우리의 근원과 소속의 뿌리, 더 나아가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려는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지회 회원들과 아드마 프리마리아와 다른 그룹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과 돈 보스코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동반으로, 우리의 내적인 삶을 중심에 두고 일해 왔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도안에서 로 주님과 관계를 가꾸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성체라는 엄청난 선물로 자신을 자라게 하고, 마리아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 기쁨을 재발견하고, 덕을 실천하면서, 화해의 성사를 통해 나를 안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법을 마리아로부터 배우는,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10단계로 구성된 여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직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여유를 찾게 되는 이 여름에,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작은 성찰의 공간을 찾는 노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고,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까지 걸어갑시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한드로 구에바라**

## 양성 여정

### 성덕과 매일의 삶

하느님은 구체적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육체와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을 통해 창조와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대적입니다. 그분은 모든 마음을 감싸고 알고 계시며 각 자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진실하고 지혜롭게 도우시면서,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 즉 우리 안에 당신 아들의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 그분과 같아져 충만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성 바오로의 말을 들어 봅시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골로 2,9~10).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에페 3,17~19).

하느님의 구체성은 성인들은 구체적인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고, 성인들은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키아라 루빅은, 애덕은 최고의 가치이므로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보스코 식으로 말하자면, ‘나이 퀴드 아지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과 행동, 기도와 삶,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거리가 벌어지고, 신앙의 여정을 약화시킵니다.

#### 1. 실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요한 3,21)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 바오로와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 야고보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야고 2,17. 26)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소문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우유부단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건강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4)라는 예수님이 언제나 그 모델이십니다.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구원과 충만함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일에 대해,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는 더욱 더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루카 18,1) 기도해야 하며, 항상 하느님 앞에서 살며 그분과 일치하여 살아야 합니다. 가끔 사랑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성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내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요한 5:17)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타성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를 방해하고 행동을 마비시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 2. 덕의 성장

따라서 **실천은 어쩌다 한번씩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근본적인 회심, 전적인 맡김, 신뢰와 충실, 변함없는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너희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의, 절제, 신중함, 인내와 같은 기본 덕목과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신학적 덕목들로부터 성장합니다. 덕을 행할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며, 덕을 행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성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고립된 선은 “찾을 시간이 없고”, 인격을 통합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삶의 이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내면의 본받고자 하기에, 종종 실망, 슬픔, 죄책감, 후회로 영혼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선의 실천이 일상의 것이 아니라면 영혼은 영의 힘을 잃고, 의지는 희망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도덕성은 나타해지며, 믿음은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덕의 성장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 헌신의 공동 결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행 없이는 신비주의도 없고, 낡은 인간의 죽음 없이는 새로운 생명도 없으며, 고행 없이는 결실도 없습니다.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 있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3. 일용할 양식 청하기

복음을 실제로 매일 실천하며 살기 위한 주님의 가장 좋은 제안은 그리스도인 기도의 정석인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일용할 양식”, 즉 **현세를 사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합니다. 재능을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임무를 사용하기 위해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무질서한 기억과 기대, 비난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지금 여기서 사랑하라고 제안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본질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혼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며,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하면서, 하느님의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 아래 살도록 도와줍니다. 살레시오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나에게 영혼을 주고 모든 것은 가져가라**는 좌우명(모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느님께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요점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더도 덜도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너무 많이 구하거나, 큰 아들처럼 너무 적게 구하는 것은, 효심이 부족하고 섭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은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온”하며, 동시에 자신이 혼자 아니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경청하고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사랑에 대한 효심 어린 확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무심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일할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첫번째 진복팔단인 “마음이 가난한 자”(마태 5,3), 즉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께에서 떠나 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앞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5~8).

매일 거룩하게 살기 위한 최고의 영적 제안 중 하나는, **사랑의 예술에** 관한 소책자에 있는 키아라 루빅의 제안입니다. 성인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때 ‘아무 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주라고 말하며, 마음에 무언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주지 않고 남기는 것은 ‘순결하신 하느님’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4. 살레시오 낙관주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불평은 생각과 행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명랑성과 낙관주의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전형적인 특성이며 토양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선의 승리를 믿지만 악의 권세도 알고 있고, 부활하신 분의

능력과 성인들도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수의 끔찍한 함정과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영적 투쟁의 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주의’를 피할 수 있는 ‘낙관주의’를 그리스도교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레시오회회 회헌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레시오 회원은 성부께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어려움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돈 보스코는 “아무것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인본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인간의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차원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를 깨달았고, 젊은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었기에, 그 시대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회헌 17).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레시오회 회원들에게 강의하면서, 세속적 비관주의와 그리스도교적 낙관주의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도회 안에서조차, 형제들과 교회의 삶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취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나 대안적 과정을 ‘보이콧’으로 막는 태도뿐 아니라 그 반대의 입장, 즉 복음의 힘과 참신함을 없애는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상황이 요구하는 복잡성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유행하는 문화에 적응하지도 않고, 영웅적이지만 이미 사라진 과거에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비관주의자도 낙관주의자도 아닌 21세기의 살레시오는 희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중심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주의자도 낙관주의자도 아니며, 명랑하고 희망에 찬 남녀, 자동화가 아니라 장인이며, “이 세상이 제공하지 않는 다른 꿈을 보여주고, 관대함, 봉사, 순결, 강인함, 용서, 성소에 대한 충실, 기도, 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투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 사회적 우정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36](#))



##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의 편지

**“살레시오 가족의 활성화는 카리스마의 기원으로 돌아가, 돈 보스코의 정신을 만날 때 그 역동성과 복음적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가족은 매우 섬세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 양성, 성장, 교육 과제의 책임감 있는 수행을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에게 열려 있고 함께 걸어가는 가정 사목과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이 되살아납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신원헌장 16조에는 “가정은 사람들 사이의, 종족들 사이의 연대를 위한 첫 학교이다. 모든 이는 가정이 항상 더욱 분명하게 하나의 작은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존엄성과 견고함을 보장하는 데 헌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도 마리아의 인도 아래,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움의 전망 안에서, 양성을 통해, 삶의 여정과 기도를 나누면서, 가족과 젊은 부부들의 현존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배우자와 부모가 되기 위한 마리아는 결혼한 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의 어머니이며 스승이십니다. ADMA는 혼인한 이들의 성소의 충실을 지원하며, 자녀교육의 큰 도움이 됩니다. 신심회의 프로젝트는 온가족을 생각하는 비전에 따라, 가족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길을 자수로 수놓는



실 입 니 다 .  
실제로 부모가  
기 도 하 고

신앙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앞에서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신앙의 증거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풍요로운 유산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누구도 혼자서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힘든 것과 수고를 함께 짊어지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 혼인의 중심에 그리고 혼인성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합시다.
- 은총이 첫자리임을 기억합시다.
- 기도가 어떻게 애덕이 되는지 체험합시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영적 동반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제, 수도자, 그리고 혼인한 이들, 성소와 사명의 하느님 체험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레시오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걷는데, 이들은 신앙 안에서 소중한 인도자가 됩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 7. 신심회의 평신도 참여

제7조는 발도코 토리노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입회지원자에게, 규칙 10조와 11조를 언급하며, 양성과정을 통한, 신심회의 직접적인 참여와 삶에 대해 제안합니다.

신심회는 각 회원의 헌신과 참여로 살아갑니다. 모든 제안에 적극적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면서, ADMA 회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DMA의 일원이 되라는 부르심은 책임을 맡은 이들의 동반을 받으며 함께 성령의 활동과 신자들의 마리아 도움의 도움으로 성숙하고 자유롭게 책임감 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각 사람은 모임과 다양한 활동에 친교와 협력의 정신으로 참여하고 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는 신심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그룹은 ADMA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식별하고 동반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과정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이 기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입회준비기에는 규칙과 정신에 대해 충실하게 잘 배우고, 도움이신 마리아의 부르심과 선물에 대해 책임감 있게 개별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DMA는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축제에서뿐 아니라, 살레시오 사명 안에서 도움이신 마리아의 정신과 삶을 항구하게 선택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회는 여러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소속감과 사도적 임무를 고취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지역적으로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평생양성 차원에서 준비합니다. 각 회원은 신심회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에게 열려 있는 소속감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양성 차원의 월례모임, 기도와 미사와 성시간, 매월 24일 도움이신 마리아 기념일,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는 연례 마리아의 날,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 영적강화, 행렬, 순례, 피정, 그밖에 지역에 따른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모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1) 일치, 교류, 나눔을 통한 친교 모임.
- 2) 양성 여정을 통한 신앙 성장을 위한 모임.
- 3) 성체성사-마리아 축일 미사, 성시간과 로사리오 기도 모임.

신심회의 대중적인 성격 때문에 모든 모임은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더 많은 신앙에 대한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이,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누룩’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연피정은 쇠신의 순간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영적식별력을 갖게 합니다.

ADMA의 매우 중요한 측면은 평신도 신심회라는 점입니다.

ADMA의 규칙서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교회의 친교와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평신도 단체에게 제시했던 몇 가지 기준이, 규칙서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룩함(성덕)에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소이다.**
-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포할 책임이 있다.**
- **교황 및 교구장 주교와의 우호적인 관계 안에서, “교회 내 모든 형태의 사도직에 대한 상호 존중”과 확고하고 확신에 찬 친교를 살아간다.**
- **교회의 사도적 목적인 “인간의 복음화와 성화, 그리스도교적 인식과 양성”을 받아들이고 참여한다.**
- **교회의 사회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사회 안에서의 현존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위한 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기준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삶과 일의 동반 다양한 형태의 참여 연합 형태의 삶과 활동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와 관상, 전례와 성사생활, 성소를 꽃피게 하는 활성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능동적 참여, 그리스도인 양성을 위한 교리 교육적 헌신과 교육적 역량, 사회 생활의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현존과 사회의 창의적이며 다양한 현존 안에서, 문화와 영성, 이탈과 가난의 복음적 모두를 향한 보다 인내로운 애덕을 위한 모든 이를 향한 보다 인내로운 애덕을 위한 이탈과 청빈의 복음 정신, 그리스도인적이며 친교의 세례를 받았지만 “멀리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쇠신의 모습입니다.

신심회의 세속성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모든 수준, 특히 소속 지역 차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평신도를 교계제도의 한 부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으며,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과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경향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친교 안에서만 그 특성이 드러나는 참신함을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헌된 사람들과 평신도들의 각각의 성소와



역할을 존중하면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 책임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평신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성숙하고 헌신적인 평신도 활성화에 위해, 평신도를 ‘동료’로서뿐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삶에 대한 진정한 ‘공동 책임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심회의 첫 번째

책임은 ADMA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로서의 부르심을 충분히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활성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안 루카와 마리안젤라 스페소**

## 가족의 연대기

### 시칠리아의 아드마 제16회 마리아의 날



2023년 4월 16일, 알리 테르메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성전에서, 시칠리아의 아드마 제16회 마리아의 날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300명 이상의 ADMA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살바토레 디 마이오 회장이 이끄는 시칠리아 지역협의회의 소중한 봉사로서 신앙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로 발도코 아드마 프리마리아 소속, 한 쌍의 부부도 일치와 나눔의 의미로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거룩한 묵주기도로 시작하여, 살바토레 디 마이오 관구장과 평의회의 인사말, 알리 테르메 시장의 환영사, 알레산드로 말라폰테 신부의 “마리아의 인도 아래 돈 보스코 방식을 따르는 교육자들”이라는 주제 강의, 마리엘라 로 투르코 수녀의 복녀 막달레나 모라노에 대한 증언, 끝으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는 예상했던 프로그램과는 달리 성화작가의 증언으로 이어졌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린 거룩한 자비의 아름다운 이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ADMA 동료 두 부부의 간단한 나눔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중심 주제로 파올로 시칼라 신부가 강렬하고 소중한 성시간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체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들 가까이 머물기 위해 오라토리오에 아드마 신심회의 현존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성모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지만,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를 형제자매로 맞아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 잊을 수 없는 행사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마리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알도와 티지아나 부니노**

### 폴란드-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 전국대회

2023년 5월 6일에 ADMA 전국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미아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성모상 앞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돈 보스코가 토리노에서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와 함께 바친 첫 성모상을 떠올리며, 열심히 성모상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내빈들 중에는 살레시오 가족 단체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피타 관구의 아드마 회장인 카타르지나 마즈다 여사가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구장 타데우즈 이트리치, 안나 라스타위카 여사, 시복시성과정의 담당자이며 조정자인 스테판 비신스키 추기경, 살레시오 수녀들, 크라코비아 관구의 순례자들과 영적활성자, 브레슬라비아 관구, 바르샤비아 관구, 코비린카 준관구, 피타, 슈젠친, 비드고슈치, 스투프스크, 뎅브즈노, 뎅브노, 체비안스카 나드 비스와, 로잔스토크, 우치, 슈치르크, 트와르도그라, 오슈비엔침, 키엘체, 타노보, 피초비체의 대표단과 루미아와 마리아의 구에리에리이다.



본당 사제이자 성지 관리자인 라파엘 베르니키 신부가 루미아 성지와 살레시오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성지에서 마리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의 마리아의 성화를 감상합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커피와 점심을 먹으며 여러 차례 만나 마리아 사도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전문 그룹인 Les Femmes의 공연,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로사리오>라는 멋진 콘서트를 들었습니다.

2024년 파티마에서 ADMA 세계 총회가 개최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포르투갈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d. 헨릭 카스지키**  
ADMA 영적활성자 PLN

## 필리핀 - ADMA 전국 협의회 및 창립기념식



2023년 4월 23일, 필리핀의 ADMA 회원들이 총회와 ADMA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카티 시티의 성 요한 보스코 본당 루젠 홀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약 110 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필리핀의 여러 지부 담당자들이 모여 각 지부의 업데이트 현황을 보고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팡가시안, 팜팡가, 딸락 지부 담당자들도 ADMA FIS 대표이자 영적활성자인 고도프레도 아티엔자 SDB 신부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신심회의 연간결과보고와 연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역(라구나, 마닐라, 파라나크, 파사이)의 ADMA 회원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구나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 마카티 성 요한 보스코 본당과 마닐라 도움이신 마리아 본당은 잠재적 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성에 대해서는 FMA의 ADMA 영적활성자인 메리 주드 알칸스 수녀가 진행했습니다. 주드 수녀는 모든 회원의 의무에 대해, ADMA 규칙 제4조를 기억하도록 모두에게 초대했습니다.

거룩한 미사는 사망한 회원과 투병 중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특별히 전국 회장이었던 +리나 메이 임 (1971~2023) 회원의 영혼한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2023년 4월 3일, 하느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전국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크리스 마그비탕 신부가 거룩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 제16회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 간추린 소책자 발간

살레시오 가족 사무국은 2023년 총장 스트렌나 주제인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 “돈 보스코 가족의 평신도 차원” - 을 살레시오가족의 활성화를 위해 책자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제16회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GSFS) 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을 엮은 것입니다.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토리노-발도코에서 18개 이상의 단체에 소속된 살레시오 가족 250여 명이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으로 돈 보스코 가족의 평신도 차원과 단체들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살레시오 대가족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심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임, 기도, 카리스마 탄생 장소들 방문하기, 나눔, 미사와 친교의 순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IME 커뮤니케이션’이 그래픽으로 편집한 약 40페이지 분량의 이 소책자는 살레시오 가족의 평신도 차원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된 것들과 이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로 인식된 것들,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설명해줍니다.

이어서 1월 13일(금) 원탁회의에 참석한 강사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풍부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살레시오 가족 각 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에서 출발하여, 우리 가족의 세속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부르심’에 관한 그룹작업이 있었고(수도자, 평신도, 제3회), 그것에 대한 활동 요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단체들은 어떻게 하며 우리 살레시오 성소의 평신도 차원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봉헌으로 살레시오 성소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GSFS 마지막 날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각 SF 단체의 담당자들이 GSFS 행사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초대/권고와 친교, 선교의 누룩이 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할 세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가 살레시오 가족의 평신도 차원을 계속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살레시오 가족 사무국 총대표인 호안 루이스 플레이아모레라 신부와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영적활성자이며, GSFS 2023의 코디네이터인 알레한드로 게바라 신부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탈리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된 이 브로셔는 참조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LIBRETTO SINTESI GSFS ITA.pdf](#)
- [LIBRETTO SINTESI GSFS ENG.pdf](#)
- [LIBRETTO SINTESI GSFS SPA.pdf](#)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2023년 9월 24일부터 등록

[www.mariaauxiliadora2024.pt](http://www.mariaauxiliadora2024.pt)